

6 월의 양돈관리 포인트

양돈장의 다이아몬드



황윤재 상무
금오B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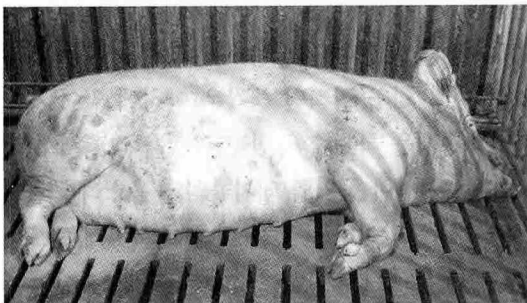
‘눈부시게 푸른 아침이군...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야. 초여름 하늘도 이렇게 푸를 수 있구나... 근데 수 십 년을 살았으면서도 왜 이렇게 새삼스러운 거지? 거참...’

이렇게 여유를 잡으며 돈사를 올라가고 있는데 번식사에서 일하는 막내가 바쁘게 뛰어나오면서 날 부른다. 이렇게 아침부터 일하다 말고 날 부르는 건 번식돈에서 이상 증상이 있다는 얘기 말곤 없겠지. 아니나 다를까?

“임신 말기 모돈 한 마리가 이상한데요? 갑자기 밥도 먹지 않고 피부가 이상하게 벌개졌어요. 어제 까지도 멀쩡했거든요.”

“질병이 다 그런 거 아냐? 깔끔하게 잘 먹고 잘 싸다가 느닷없이 쓰러지거나 인사도 없이 가버리는 게 질병 아니냐고...”

“그래도 이번 건 전 처음 보는 건데 팀장님은 돈단독 같다고 하는데요. 상무님이 함 가서 진단 해



<그림 1> 돈단독의 피부형 병변

줘 봐요.”

항상 예외는 있다

“모돈이 몇 산찬데?”

“8산인데요.”

“에이~ 그럼 아닐 거야. 돈단독은 번식돈군에선 주로 후보돈이나 저산차 모돈에서 나타나. 나이 먹은 녀석들은 나름대로 면역이 잘 되어 있어서 여간해서는 돈단독에 잘 걸리지 않아.”

그래도 양돈장 짬밥이 있는 수의사랍시고 이렇게 이는 척하고 입장 교육을 했다. 그런데 질병이란 게 항상 교과서처럼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법인데... 현장에 올라가서 보니 사진처럼 돈단독, 그것도 그 특유의 피부병변이 제대로 나온 돈단독이었다.

“오우~ 지자스!”

오늘 또 체면 깔끔하게 구겨져 버렸다. 여간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하필 내 앞에서 나오는 거지?

“백신을 하는데 왜 나오는 거지?”

“우리 농장 차단 방역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찌그러진 내 체면을 틈타 몇 몇 짜샤들이 요파우 질문을 사정없이 던진다. 임마! 백신 했다고 다 되면 이 세상 양돈장에 질병이 사악 사라지게? 세상만사가 그렇게 간단하게 돌아가면 나두 좋겠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 아마 백신 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항생제 투약이 원인이 될 수도 있어. 또, 우리나라 양돈장에서 돈단독균이 없는 곳은 아마 보기 힘들 걸? 이 세균도 생명력이 강한 편이어서 농장 안팎에 얼마든지 존재하는 놈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거야. 그러니까 돈단독이 발생하는 건 그 농장의 차단방역을 잘하고 못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냐 임마!

“그렇게 세균이 많으면 왜 자돈들한테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거죠? 자돈한테 항생제를 많이 써서 그런가요?”

좀 머리를 굴릴 줄 아는 관리자가 한 질문 했다.

“그게 아니고 물론 이런 경우도 예외는 있지만 2~3개월 이전의 돼지는 잘 안 걸려. 초유에서 얻은 중화항체가 돈단독의 경우는 그만큼 오래가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백신 접종을 되도록 늦추라는 거야.”

돈단독의 다양한 증상들

“피부병이 이렇게 나오는 게 돈단독이면 이거 진단하는 거 간단하네요 뭐.”

“인간아! 질병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몇 번 몇 번 얘기하니? 이렇게 피부병변이 나오는 건 일부에 지나지 않아. 이런 경우는 아급성형으로 분류하지. 어떤 경우엔 별 다른 증상도 없이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어. 열이 펄펄 나다가 유산을 하면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심급성형이나 아급성형으로 나온 이후에 만성형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원인균이 관절에 침범해서 관절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심장 판막까지 침범해서 심내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지. 이럴 땐 어떤 병으로 판단할래? 특히 이번 경우처럼 임신돈에서 발생한 경우, 모돈의 생명엔 크게 지장이 없어 보여도 그 뱃속에 자돈까지 안전하리란 보장이 없어요.”

번식돈균에 돈단독이 발생하면 ① 유산이 나오

고 ② 임신 초기의 경우, 배아 흡수가 일어나며 재발정이 지연된다.(비정상 재발) ③ 교배직후 감염된다면 정상적 주기로 재발이 오기도 한다 ④ 복당 산자수의 변이가 심할 수 있다. 지금은 이렇게 단 한 마리만 나와서 불행 중 다행이지만 만일 여기저기서 다발한다고 생각해봐. 우리 인센티브는 살짝 포기해야 되는 거야. 임마…

“근데 겨우 한 마리만 나왔는데 왜 음수투약을 임신사 전체에 다하고 주변 돼지에게 주사를 하는 거지요? 돈 아깝구로…”

평소에 까칠하게 네가티브한 녀석이 또 판지를 걸어온다. 요놈 언젠가 유배를 보내야 하는데 나한테 인사권이 없으니… 어이구 주먹이 운다. 주먹이 울어도 나잇살 더 먹은 내가 참아지…

“한 마리만 증상을 보여도 애가 똥 오줌을 통해서 이 돈상 안에 세균을 엄청 뿌려 뉘거든. 너, 애 이동 시킨다고 스톱이며 군사돈방이며 왔다 갔다 하면서 손하고 장화 소독하고 작업복 그때마다 갈아입었어? 애가 이동한 통로 수세소독 싹 했냐? 아니지? 애 이동한 후에 다른 돼지들을 같은 통로를 통해 이동 시켰지? 이래도 항생제 쓰지 않을래? 쓰기 싫으면 쓰지마. 단, 오늘 이후로 다른 임신돈에 발생하는 돈단독에 대해서는 니가 책임진다.”

“…” 내가 너무 까칠하게 나왔나?

일단 치료는 간단하다. 내가 잘 쓰는 방법, 우선 속효성 페니실린계제로 한 방 12시간 안에 지속성계제로 한번 더. 근데 사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항생제의 사용에 제약이 없다 보니 돈단독을 너무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다는 거다. 게다가 진단도 자기 경험에 비추어 아주 쉽게 해버린다. 그 사람들은 돈단독의 피부형처럼 피부증상을 비슷하게 보이는 돼지 질병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까 모를까? 이렇게 질병과 진단을 우습게 아는 경향이 우리 양돈장을 질병의 寶庫(보고)로 만든 건 아닐까? **양돈**